



4면

지속가능발전대회 지역조직위 발족

전주매일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음 5월 14일) 제280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 출범 보름 만에 '결실'

도·군산·김제시·부안군, 갈등 우려 컸던
수상태양광 발전 배분기준 상생 합의안 도출
산업·개발투자 균형 개발, 경제위기 상황 고려
군산 450MW, 김제·부안 각 225MW씩 배분

새만금의 원활한 개발과 자치단체 간 상생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해 꾸린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갈등 우려가 컸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기준 관련 상생 합의안을 성공적으로 도출했다. (관련사건 3면) 협의회 출범 보름 만에 거둔 결실이어서 앞으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자치단체 간 협의를 타협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22일 새만금33센터에서 '제1차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를 열고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 배분 기준 건의안에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7일 전북도와 3개 시·군이 새만금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의회 구성에 합의하고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협의회에 앞서 도와 3개 시·군 새만금 담당국장이 참여한 실무행정 협의회는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기준 건의안을 마련해 협의회에 상정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시·군간 갈등 소지가 클 것으로 지목된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기준 건의안 합의를 위해 3개 시·군과 수차례 협의토록 했으며, 관계기관 및 정치권과 소통하며 상생 방안을 고심해 배분기준 건의안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이날 행정협의회는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의 배분기준 건의안을 산업투자형(군산)에 450MW, 개발투자형에 450MW 배분하기로 하고, 이 중 개발투자형은 북

합·산업(김제)과 관광·레저(부안)에 각 225MW를 배분해 건의하기로 공동 합의했다.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은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이다.

산업투자형은 산업시설 유치와 생산 활동에 따른 산업경제 부분에 활용하고, 개발투자형은 용지매입·조성에 따른 부지공급 및 관광·레저·단지형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배분기준 건의안 결정은 산업투자와 개발투자가 균형적으로 개발되도록 합리적인 배분을 고려했으며, 지역주도형과 같이 군산의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했다.

또한 수요와 공급간 안정적 균형과 지역별 인구, 편익 경제연관성 등 다양한 여건이 반영됐다.

도는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을 사업 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할 계획이며, 오는 7월에 새만금개발청과 도, 3개 시·군 간 재생에너지사업 상생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각 시장·군수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구성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행정협의회 안전발굴 사전협의, 후속 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도와 3개 시·군이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도와 시·군 직원으로 구성된 TP팀도 7월 정기 인사 시까지 배치하기로 했다.

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지자체간 의견 조율과 상생 협력이 필요

한 사항으로 하되, 3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분기별 1회 개최되는 행정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후속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새만금33센터에서는 행정협의회 사무소 개소 현판식도 함께 개최함으로써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공동협력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겼다.

행정협의회를 주재한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가 앞장서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밀어주며 전북도의 이름으로 '원팀(One team)'이 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며 "오늘의 결단과 합의가 새만금 사업의 물줄기를 바꾸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지역간 갈등과 반목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도민에게 보여줬다"며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사업을 지난 1990년에 청와대 건의할 때부터 참여한 사람으로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에 앞장서고 싶은 게 솔직한 저의 소망이다"며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3개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전북도에서 제시한 2단계 발전사업 배분기준 건의안 공동 합의에 대응적 차원에서 어렵게 결단했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단계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민간투자유치와 더불어 공공주도형 사업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관광레저 및 산업단지가 복합되는 새만금 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

전북도가 군산시, 군산대와 함께 새만금컨선편센터(GSCC)에서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비전선포식을 22일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용흥택 과기부 1차관, 송하진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광병선 군산대 총장 등 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친환경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 본격

전북도, 군산 강소특구 비전 선포

군산대, 기술핵심기관 참여
5년간 490억 투입 집중육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 추진

전북도가 군산시, 군산대와 함께 새만금컨선편센터(GSCC)에서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비전선포식을 22일 개최했다. 이날 강소특구 비전선포식은 군산 강소특구지역의 연구개발 성과확산과 기술사업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비전선포식에는 용흥택 과기부 1차관, 송하진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광병선 군산대 총장 등 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기술핵심기관 군산대 광병선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강소특구 비전 및 추진전략 발표와 강소특구의 신규 연구소기업 현판 전달식 감사패 수여, 비전선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5년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의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했으며, 2019년에 6개 지역, 지난해에는 군산을 포함한 6개 지역을 강소특구로 추가 지정했다.

그 중 군산강소특구는 군산대가 기술핵심기관으로 참여하고,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군산국가산업단지 1공구 등 총 1.84㎢가 배후단지로 지정됐으며, 특화분야로는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가 결정됐다.

이로써 군산강소특구 육성사업은 기술개발 연계, 기술창업 육성,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향후 5년간 490억원 규모를 투입, 집중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대학의 기술사업화가 기술개발, 기술이전까지의 일방향 프로세스였다면, 강소특구는 기술출자, 연구소기업 설립, 기술 창업 육성 및 성장지원을 통해 성장의 벽을 깨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사업모델이다.

강소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은 법인세·소득세 등이 감면될 뿐 아니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앞으로 전기차 소프트웨어(SW)융합 부품과 전기차 구동부품 등 2개 분야를 축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국내 최고의 전기차 전장부품과 부품소재 중심의 산업기지로 조성한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전기차 클러스터 수요기반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등 4대 분야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과로 부가가치유발 1,538억원, 고용유발 858명, 생산유발효과가 1,6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산 주력산업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우수인재 영입과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갈 전북 경제 회복의 새 심장으로서의 부가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군산 강소특구의 비전을 대내외로 선포함으로써 군산 지역의 친환경 전기차 산업이 미래지향적 산업을 선도하는 허브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전북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중심 도약 김제

GIMJE CITY

경제도약, 정병로운 김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